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9월 24일(금)
...(음력 8월 18일)...
Пятница
24 сентября 2021г.
№ 37 (11954)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8일(토)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의 주최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공원에서 <김치>축제가 펼쳐졌다.
(관련 기사 2면에 게재)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 국가 두마 의원 선거 결과 발표

사할린의 167호 단일선거구에 따른 두마 선거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예진나야 러시아당(통합 러시아당)'의 게오르기 카를로브가 제 8차 국가두마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각 후보당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게오르기 카를로브(통합 러시아당) - 56,558표 - 40.54%

알렉세이 코르니엔코(러시아 연방 공산당) - 35,820표 - 25.68%

로만 베제네예브(새국민당) - 14,488표 - 10.39%

드미트리 플레예르(러시아 자유 민주당) - 9,792표 - 7.02%

알렉산드르 아니스트라토브(진실 수호 - 애국 - 정의로운 러시아당) - 9,176표 - 6.58%

올렉 코레츠키(러시아 공산주의자당) - 6,914표 - 4.96%

알렉산드르 콘코브(로지나당) - 3,624표 - 2.60%

안톤 구르킨(야블로코당) - 3,130표 - 2.24%

사할린주 연방 선거구 총투표 결과 정당별 득표율도 발표됐다.

통합 러시아당 - 55,002표 - 36.75%

러시아 연방 공산당 - 44,077표 - 29.45%

새국민당 - 13,970표 - 9.33%

러시아 자유 민주당 - 13,694표 - 9.15%

진실 수호 - 애국 - 정의로운 러시아당 - 8,003표 - 5.35%

연금수급자당 - 4,178표 - 2.79%

러시아 공산주의자당 - 2,869표 - 1.91%

러시아 환경보호 '녹색'당 - 1,584표 - 1.06%

야블로코당 - 1,522표 - 1.02%

러시아 자유정의당 - 1,357표 - 0.91%

조국당 - 1,442표 - 0.96%

녹색 대책당 - 1,252표 - 0.84%

로스트당(발전당) - 466표 - 0.31%

그라즈단스카야 플랴트포르마당(아나키스트당) - 265표 - 0.18%

9월 21일 소집된 사할린주선거위원회 회의에서 9월 17일-19일 간 진행된 국가두마 의원 선거가 승인되어 이들 결과 효력이 발생된다.

<2021 사할린 석유·가스> 컨퍼런스의 핵심 주제는 녹색에너지 개발

9월 28일(화) - 30일(목)까지 대규모 글로벌 에너지 회의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을 겸하여 개최된다. 포럼에는 석유·가스산업의 대표들과 우수 전문가 100명 이상이 참석한다.

제 25회 <사할린의 석유 및 가스> 국제 콘퍼런스 진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사할린에서 가스 수송망 개발과 가스화 사업 문제들, 석유·가스 기획 시행의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액화천연가스의 수요와 보존, 수송 및 생산 전망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스 시장을 대상으로 치열한 경쟁의 지정학적, 경제적 요인들, 세계 불황의 여건 속에서 석유·가스 산업의 전망에 특별히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저탄소 경제와 국제적 에너지 전환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사할린에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러시아의 수소에너지 개발의 잠재력, 사할린주의 종합 동력에너지 전체와 연결하여 탄소 배출의 점진적 감소와 탄소 배출 감소에 따른 전략을 심의할 계획이다.

포럼의 첫 전체회의는 9월 28일(화) 10시에 시작되며 발표자들은 저탄소 경제개발에 따른 대형 석유가스 운영자들과 지역 정부의 계획을 평가 논의하고, 2025년에 탄소 중립 달성의 전망을 심의한다.

이외에도 포럼의 일환으로 사할린 지역에 휘발유와 항공 연료들을 공급하는 액화 응축가스 생산에 따른 공장 건설의 기술적, 경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사할린주 정부와 가스프롬 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통령 특별 전권대표인 아나톨리 추바이스는 올해 포럼의 주요 발표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러시아와 세계 에너지산업 개발 전략을 주제로 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의 발표자들은 막심 레셰트니코프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 장관, 알레리 팔코브 러시아 과학 및 고등교육부 장관, 파벨 소로킨 러시아 연방 에너지부 차관, 드미트리 페스코브 디지털 및 공학 부문 대통령 특별 전권대표, 폴L. 클레이넨 러시아 엑손모바일 회장, 예카테리나 그루셰츠카야 러시아 '셸'회사 대표, 마르쿠스 에더러 러시아 연방 유럽연합 대사,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브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소장이다.

단신

사할린주에 난방 시즌 준비 완료

사할린주 난방 시즌 준비가 완료된 가운데 이를 위해 지역 예산에서 10억 루블 리 이상이 지출되었으며 사할린주의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14km의 난방망과 32km 상수도관망을 수리했다. 사할린주의 시즌 총 준비작업은 95% 이뤄졌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주 정부 실무회의에서 발표했다.

현재 전기시설 수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획한 160km의 송전망 중 118km의 송전망이 교체되었다. 사할린주의 모든 자원공급 기관들은 액체 연료와 석탄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 자치체의 보관 창고에는 석탄 3만 2천 톤 이상(표준 연료 비축량의 28%), 액체 연료는 2천421톤이 비축(필수 용량의 55%)가 확보된 상태다.

사할린 남부 지역에서 난방은 10월 초에 시작되며, 남 쿠릴 열도에는 예전처럼 추위가 늦게 옴으로 10월 중순에 난방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후 지역은 이미 난방이 시작됐고, 노글리키 지역도 조만간 난방이 시작될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타타르 사반투이 행사 개최

9월 24일-25일 이틀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타타르 전통 명절 '사반투이'의 일환으로 스포츠 및 문화 행사가 개최된다.

24일(금) 오후 5시 - 6시 30분까지 달네에 동네에서 <사할린 사반투이>컵 경마 대회가 열리고, 25일(토)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명절 행사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공원에서 펼쳐지는 가운데 민속 놀이, 전통민족 요리 시식, 민속 레슬링 '쿠레쉬', 예술단들의 공연 등이 방문객들을 기다린다.

사할린주, 22일 코로나19로 3명 사망

사할린주 보건부가 9월 22일(수) 기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밝혔다.

9월 22일(수) 현재 859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중 305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총 사망자 누적수는 288명이며, 22일 기준 하루 사망자 3명, 266개의 빈 병상이 있고, 하루 확진자 수는 70명이다.

백신 접종자 누적수는 총 17만2천234명이며 하루 백신 접종 상황은 (스푸트니크 V 187명; 스푸트니크 라이트(완치자들에게) 2명, 총 968명 접종; 외국인인 1명 (접종 누적수 총 3651명)이다.

집단면역은 54.2%이고, 재접종자는 하루 12명(총 3357명)이다.

현재 백신은 6만2530 회분이 남아있고, 최근 6개월 간 코로나19 완치자 3만여 명이 항체를 지니고 있다.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2만5천486명이 접종을 받아야 한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추석맞이 김치축제 개최

지난 18일(토)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의 주최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공원에서 <김치>축제가 펼쳐졌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진 김치는 사할린에서도 역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사할린에 많은 한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이곳의 주민들도 김치를 무척 좋아한다.

김치축제는 다함께 김치 만들기가 주요 행사였다. 축제는 한 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의 공연으로 막을 열었고, 행사를 축하하며 사할린주 세르게이 바이다코브 제1부지사,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 주 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광기동 소장이 인사를 전했다.

바이다코브 제1부지사는 한국의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이와 같은 축제 개최를 축하하며 사할린에는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자체 문화를 잘 보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박순옥 회장에게 사할린주 형성 75주년 기념 명예 훈장을 수여했다.

박순옥 회장은 추석을 맞아 광복절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이번 김치축제를 개최했고, 전에 여러 번 실내에서 김치축제를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대규모로 야외에서 김치축제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축제가 잘 진행되도록 뒷받침해준 모든 주 및 시 행정부 기관과 단체들,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광기동 소장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36년 동안에는 우리말과 문화를 즐길 수가 없었고 한국 것은 나쁘고, 열등하다는 의식을 일본식민지 당국은 조장하였다.

그러나 해방이 되어 우리 문화를 즐기고 또 발전시켜 오늘날 케이팝(K-pop)과 한국 문화(K-culture)는 세계인이 다 같이 즐기는 문화가 되었다. 사할린에서도 한국 문화가 널리 알려지고 러시아의 문화와 융합되어 사할린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들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격적인 행사로 김치를 만들기 위해 주최 측은 미리 절인 배추와 양념, 부재료들을 준비해 놓았다. 축제 진행자인 배영희 사할린주한인협회 임원의 설명에 따라 50여 명의 시민들이 김치를 만들었다. 참가자 중에는 한인, 러시아인을 비롯해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모두 밝고, 진지한 모습으로 열심히 김치를 따라 담갔다.

그외 축제 관객들을 위한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할린국립대 교수, 학생-자원봉사자들이 한글 쓰기를 비롯해 한국 문화체험 교실을 열었고, 최 율리아, 강팔용 등 동포 가수들의 무대가 축제를 한층 흥겨운 분위기로 돋우었다. 또한 누



구든 전통 민속놀이인 투호와 제기 차기도 체험해볼 수 있었다.

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씨름 경기에는 이날 5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네벨스크의 일반인과 선수들로 씨름 경과 우승자와 수상자들은 메달과 함께 부상도 받았다. 사할린주 씨름협회 춘 알렉세이 회장에 따르면 3부문에서 1등 한 씨름장사들에게 최신 텔레비전과 진공청소기 등을 상품으로 수여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치축제를 찾아온 관객들 모두 김치와 주먹밥을 시식해볼 수 있었고 맑고 시원한 날씨와 더불어 모든 축제의 행사들은 조직적으로 잘 진행되었다. 행사 진행을 위해 주 한인협회, 주 여성회, 주 청년회 회원들과 봉사자로 나선 사할린국립대 한영과 교수 및 학생들의 노고가 많았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박물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전 개최

9월 29일(수)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에서 제니스 타우슈카노브의 개인 사진전 <삶 M>이 열린다. 사진전의 의의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4개 박물관들의 직원 활동의 내막을 들추어 보는 것으로서 40점 이상의 사진들이 방문객들에게 공개된다. 박물관이 약동적으로 발전하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면, 직원들은 움직이는 동력이자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고리이다. 박물관 직원들은 소중한 전시품들을 연구하고, 세심하게 보존해야 하며 동시에 가족과 성인과 아동,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행사와 전시회에 도입해야 한다.

"박물관의 직원들은 가장 놀랍고 흥미로운 사람들 중 하나다. 그들은 다방면의 기술자로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기사를 쓰며, 기술을 구축하고, 관람을 진행하고, 행사를 조직한다. 그들 덕에 우리가 완비된 결과물을 보고 있다. 그래도 어떤 대단한 공을 들였는지는 아무도 볼 수 없다. 나의 사진전은 문화 분야 근로자들의 활동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제니스 타우슈카노브가 말했다. 그는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 관람 및 전시와 전문관이자 러시아 사진작가연맹 회원이며 '리스트' 사진작업실 단체 임원이다.

이번 전시회는 사할린주 박물관 사업 125주년의 일환으로 사할린주 문화·고문서사업부의 지원으로 조성되었다고 체호브 책 박물관 측이 전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оется фото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ная сотрудникам музеев

Персональная фотовыставка Дениса Таушканова "Жизнь М" откроется в музее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29 сентября. Её значение — приоткрыть за-

навес внутренней работы сотрудников четырех областных музее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сетителям представят более 40 снимков.

Музей — это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щийся "организм", и сотрудники являются движущей силой. Они — связывающее звено с прошлым и будущим. Им приходится бережно хранить и исследовать ценные экспонаты, и в то же время привносить в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авки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и идеи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молодёжи, детей, взрослых и семей.

— Сотрудники музеев — одни из самых удивительных и интересных людей. Они являются "универсалами": могут выставку поставить, статью написать, технику настроить, экскурсию прове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организовать. Благодаря им мы видим готовый результат. Однако, какой титанический труд затрачен, никто не видит. И моя выставк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раскрыт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работников культуры, — рассказал специалист экспозиционно-выставочного отдела музея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член Союза фото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и фотомастерской "Лист" Денис Таушканов.

Выставка организован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125-летия музейного дел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артнёрами являются фотомастерская "Лист" и Союз фото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8월 우수 스포츠맨'으로 공수도 선수 송 예브게니 선정

사할린주 체육부가 8월 '이달의 스포츠맨' 경연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동양 종합격투기 종목 올림픽 대비 스포츠학교의 학생인 송 예브게니 공수도 선수가 우승했다. 예브게니는 '청소년16세-17세, 체중 68kg이하'급 유럽 공수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이 경기는 8월 20일 -22일까지 핀란드의 탐페레에서 열렸으며 경기에 45개 국가에서 1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사할린의 송 예브게니는 이 종목에서 메달을 두고 경쟁하는 38명의 우수 선수들을 뒤로하고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었고, 6번의 팽팽한 결투를 거친 후 결승에 올라 독일의 안톤 콜브 선수와 결전을 치르고 4대0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사할린주 체육부가 전했다.

Лучшим спортсменом август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знан каратист Евгений Сон

Министерство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вело итоги конкурса "Спортсмен месяца" за август. По его итогам победу одержал воспитанник СШОР восточных видов единоборств, каратист Евгений Сон.

Евгений стал обладателем золотой медали первенства Европы по карате в категории "юниоры 16-17 лет, до 68 кг".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шли с 20 по 22 августа в финском городе Тампере и собрали более 10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45 стран.

Сахалинец показал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оставив позади 38 спортсменов, также боровшихся за награду высшей пробы в этой категории. Евгений провел шесть напряженных поединков, разгромив в финале спортсмена из Германии Антона Кольба со счётом 4:0,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가을 산들바람' 사할린 요트 경기 결과 발표

사할린주에서 요트 오픈 선수권대회 <가을 산들바람>이 막을 내렸다.

9일 동안에 걸쳐 홈스크, 네벨스크,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 와니노 마을(하바롭스크 변경)에서 온 약 60명의 선수들이 4개 등급- '유티미스트. 황금 함대', '유티미스트. 은빛 함대', '루츠 라디알', '루츠 미니'-에서 요트 조정 기술을 보여주었다.

"예측할 수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기를 진행할 수 있었다. 경기가 진행되는 날 동안 선수들은 무풍과 강풍, 바람, 땀, 비, 안개와 마주쳐야 했다.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졌어도 참가자들은 끝까지 이겨내고 훌륭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콤나츠키 여름 스포츠 종목 올림픽 대비 스포츠학교의 사범 왈레리 오를로브가 말했다.

(8면에 계속)

하바롭스크 포럼에서 1945년 8월 미즈호와 카미스카 비극적 학살 사건에 대해 발표

이미 새고려신문이 수많은 참가자들과 함께 대규모 행사로 치러진 하바롭스크 포럼에 대해 보도한 바와 같이 이 행사는 2차 세계대전 시 일본의 전쟁범죄와 하바롭스크 재판과정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되었다. 포럼은 일본 정부가 세균전 전개를 준비한 것을 밝힌 연방 보안국의 기밀문서의 해제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포럼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에서 진행된 가운데 극동지역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사건을 다루는 학술적 연구의 활성화에 중대한 역할을 할 거라 확신하고, 전쟁과 국제법 위반 속에 일본의 위협적인 계획 전개 및 점령한 국가와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행위와 활동에 러시아와 국제사회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킬 거라 전망한다. 더불어 사할린 한인 동포들에게도 유익한 역할을 할 것이며, 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비극은 바로 이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다.

나의 발표는 사할린 한인들 사이에 잘 알려진 일본의 전쟁범죄 조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건들을 주제로 했다. 내용은 미즈호 (포자르스코예)와 카미시스카(레오니도위) 학살에 대한 것이며, 더 나가서는 남 사할린 공략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알고 있으며, 사할린 한인 토착민과 그들의 후손들이 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 큰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런 사건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비극적 사건의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포럼에서 발표한 나의 논문 제목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단계에서 일본의 민간인 학살 연구에 따른 역사적 근거 자료들>이다. 이 발표문에서 1945년 8월과 그 이후 일본인들에 의한 한인 학살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콘스탄틴 예로페예비츠 가포넨코의 소설 <미즈호 마을의 비극>, 블라디미르 니콜라예비츠 그린의 <삶 속에 길어지는 이별>이다. 바로 이런 서적들을 통해서 사할린 사회는 1945년 8월의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런 서적들이 중요한 가

치를 지녔음에 틀림없는 것은 그 사건들이 연방 보안국 기밀문서 자료에 기록되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허구가 아닌 실제 사건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역사학자들에게는 이 서적들의 단점이 있는데 첫째 이런 창작 소설들은 작품 속에서 작가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끌어내 전개시키지만 여전히 균일한 사상은 전쟁의 공포와 민족적 토양 위에 용납되지 않는 증오다. 이를 위해 작가들은 가상의 인물을 체현시키고, 알 수 없는 사건을 구성하며 주인공의 이름과 행위를 바꾸어 서술한다. 둘째로 이 작품들은 내용이 충분치 않다. 예를 들면 '미즈호 마을의 비극'의 저자는 27명이 학살되었다고 전하지만 한인들의 학살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이야기는 그 보다 적다. 소설 <오늘도 아물지 않는 쓰라린 상처 (삶 속에 길어진 이별)>은 살인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일본 헌병의 앞잡이였으며, 학살 현장에 없었던 한인의 간접 증언으로 쓰여졌다.

콘스탄틴 예로페예비츠 가포넨코와 블라디미르 니콜라예비츠 그린의 저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으나 역사적 연구와 이런 창작적 구상의 불순물이 없는 본격적 주제를 다룬 학술적 노력의 부재는 확산된 지식의 중요성을 감소시켰다. 따라서 나의 논문 발표 말미에는 75년이란 장기간 만료로 기밀문서를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러시아 학문의 실질적인 과제란 점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지도부는 나의 의도하는 바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했고, 미즈호와 카미시스카 범죄행위의 기밀문서 해제에 대해 해당기관으로 요청서 작성과 발송에 따른 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현재 우리는 요청에 대한 회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해당 기밀문서 열람은 러시아 연구자들만 아니라 한국의 학자들과 언론인들에게도 중요하다. 그들은 여러 번 신뢰할 만한 사실 자료를 근거로 한인 학살의 진실을 연구하기 위해 기회를 얻고자 하는 희망을 토로해왔다.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학술·편집부 부장
진 올리아 박사**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어르신들을 위해 추석상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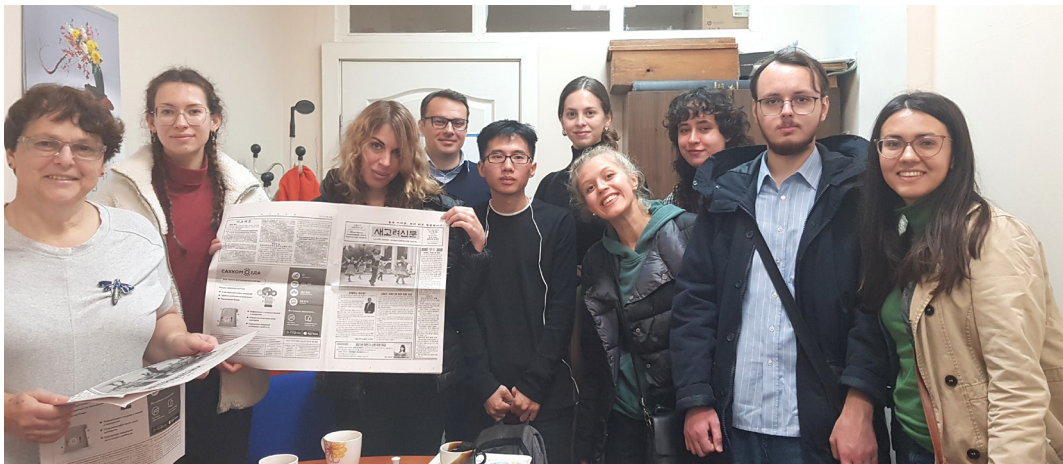


지난 19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가 운영하는 노인정 모임이 있었다. 추석을 맞아 축하하는 모임으로 한인회 건물 마당에서 시한인회 측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명절상을 차렸다. 이날 시한인회 안영수 회장과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박기동 소장이 동포들에게 따뜻한 추석 축하인사를 전하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시한인회 소속 예술단체들의 작은 공연은 명절 분위기를 한층 흥겹게 해주었다.

(유경옥,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부회장)
(사진: 시한인회 제공)

모스크바 학생단, 사할린 한인 대상으로 언어정책 연구



지난 19일(일) 모스크바 경제대학교 연구단이 사할린을 찾았다. 동대학 인문학과 베르젤손 미라 교수와 주발로브 제니스 교수의 지도아래 8명의 대학생들은 '민족문화적 다양성의 맥락에서 언어 정책' 프로그램 일환으로 9박10일의 일정을 갖고 지역 연구를 하고 있다.

'민족문화적 다양성의 맥락에서 언어 정책' 프로그램의 중점은 러시아 지역들에서, 현대적 대도시에서 러시아적 상태의 특수성 조성이다. 언어 정책 및 언어 계획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연구하는데, 즉 국가 안보, 교육, 노동시장, 이주 문제, 언어 문화유산 보존이다.

많은 민족이 사는 사할린이 좋은 연구대상으로 되고 있으며, 특히 사할린에 인구수로 보아 두 번째 가는 민족으로 한인이 물론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모스크바 조사 단의 생각이다.

이들은 주 향토박물관 부장 진 올리아 박사와 만나 사할린 한인사의 특장을 듣고, 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 사할린국립대 역사·언어학·동양학 대학 임 엘비라 학장을 비롯해 3명의 한국어 교수 등을 만나 사할린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한민족 문화 보급 등에 대해 알아보고 가정에서 언어사용, 생활방식, 가족사 등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지난 22일 새고려신문사를 다녀간 연구단은 배 워토리아 사장에게 본 신문 역사, 현황에 대해 질문을 하고 사할린 정작 가족사를 물어보았다.

연구단은 1세 동포들, 일반인들과 인터뷰하고 조사,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노인정 할머니들과 만나고 싶다고 했다. 학생들은 사할린에서 많은 취재를 하고 좋은 연구자료를 수집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구단은 28일 모스크바로 출발한다.

(본사기자)

세계한인의 날 15주년 계기 "2021 코리안 페스티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가요제" 개최

10월 9일(토) 낮 12시 10분 MBN 방영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세계한인의 날 15주년(10.5)을 맞아 '2021 코리안 페스티벌 :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가요제'를 개최한다.

※ 코리안 페스티벌은 재외동포 예능인의 모국 무대 마련 취지로 1998년 제1회 재외동포 서울예술제 이후 지속되어온 행사임

'2021 코리안 페스티벌 :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가요제'는 전 세계 곳곳에서 한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재외동포들이 노래 경연을 펼치는 축제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재외동포 10여 팀이 흥겨운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김성곤 이사장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친 상황이지만, 흥과 끼로 뭉친 우리 코리안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코리안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내국민과 동포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2021 코리안 페스티벌"은 박선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가수 김조한, 이영현, 조권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가수 크라이넛, 거미의 축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오는 29일 무관중 녹화로 진행되며 10월 9일 낮 12시 10분부터 MBN을 통해 방송된다.

새고려신문

2021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56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РК сократила список стран, прибывшие из которых подлежат двухнедельной изоляции

17 сентября орган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К сообщили о том, что сокращён список стран, прибывшие из которых подлежат обязательному 14-дневному карантину,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вакцинированы они или нет.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начиная с 1 октября политика обязательного карантина будет применяться к прибывшим из 20 стран. Это Намибия, Южная Африка, Малави, Мозамбик, Мьянма, Бангладеш, Бразилия, Суринам, Ангола, Узбекистан, Индонезия, Замбия, Джибути, Чили, Казахстан, Кыргызстан, Тринидад и Тобаго, Пакистан, Перу и Филиппин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списке 36 стран. С 1 октября в него добавлены Замбия и Джибути, а 18 стран, включая Россию, Индию, Японию и Объединённые Арабские Эмираты, из списка исключены. Прибывающие из стран, не включённых в список, если они полностью вакцинированы препаратами, утверждёнными в РК, освобождаются от двухнедельной самоизоляции.

KBS World

Американка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может стать федеральной судьёй

Вашингтон, 20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жо Байден номинировал восемь новых судей федеральных судов, включая судью из Калифорнии Люси Ко. В случае утверждения она станет первой американкой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в качестве судьи федерального апелляционного суда.

Ко работает федеральным судьёй окружного суда в Калифорнии с 2010 года. Она являлась судьёй в графстве Санта Клара прежде, чем была утверждена федеральным судьёй, сообщили в Белом доме.

Родившаяся в Вашингтоне в 1968 году Ко закончила Гарвард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в 1990 году и юридическую школу Гарварда в 1993 году. Она начала карьеру в качестве сотрудника комитета п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Сената США и затем в течение семи лет работала в департаменте юстиции, прежде, чем заняться судебной практикой.

Последние юридические номинации стали седьмыми в своём роде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Байдена в должность в январе. Он уже произвел 43 номинации на федеральные юридические посты.

Samsung начинает выдавать пожизненные гарантии обслуживания на бытовую технику

Сеул, 19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Компания Samsung Electronics подписала соглашение о партнёрстве с националь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Сеула по разработке ключевых деталей для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Две стороны особо сфокусируются на разработке решений для компрессоров и моторов будущего поколения с высокой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остью, низкими шумами и повышенным сроком службы.

Компрессоры и моторы считаются ключевыми компонентами основных

предметов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Компрессоры потребляют 70-80 процентов общей энергии в холодильниках и кондиционерах воздуха, а моторы потребляют половину энергии, используемой в стиральных машинах.

С 2021 года Samsung начинает выдавать пожизненные гарантии обслуживания на компрессоры и моторы. В компании сказали, что партнёрство с университетом позволит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и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будущем.

Число младшеклассников в школах РК на одного учителя выше, чем в ОЭСР

Количество учеников на одного учителя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начальных школах выше, чем в среднем по странам-членам Организ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развития (ОЭСР).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дан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в ежегодном отчё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РК, который опубликован 16 сентября. Так, среднее количество учеников на одного учителя в начальных школах РК в 2019 году составляло 16,6, что выше среднего показателя по ОЭСР, составлявшего 14,5 ученик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показатель для средних

школ РК составляет 13, в то время как в ОЭСР – 13,1. Что касается старших школ, то в РК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ет 11, а в ОЭСР – 13. По количеству учеников в классе РК уступает странам ОЭСР. В начальных школах их число составляет в среднем 23 человека, в то время как в ОЭСР – 21. Среднее число учеников в класса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редних школ – 26, а в ОЭСР – 23. Между тем, в 2018 году расходы на образование составили 5,1%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ВВП, а в ОЭСР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4,9%.

KBS World

Южносахалинцы попробовали приготовить кимчи на фестивале

В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Ю.А. Гагарина провели фестиваль кимчи.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ждала насыщенная культурн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горожан работал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и тематические площадки. Среди них — показательные бои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традиционные игры и танцы.

Подоб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закуски периодически проводятс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и стали уже доброй традицией, однако масштабны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состоя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первые. Инициатором выступила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администрацию города и лично мэра за оказанную помощь и поддержку. Радует, что культурная жизнь города с каждым годом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насыщеннее,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ксана Пак.

Посетил праздничную площадку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и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in.

—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й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й город. И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аздники у нас всегда проходят в атмосфере всеобщего веселья и взаимного уважения.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ее традиции, в том числе —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е, стали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островитян. Это неудивительно, вед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живает самая многочисленная в област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Уверен, что фестиваль станет настоящим подарком для горожан, 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отова и в дальнейшем поддерживать ваши начинания, — отметил мэр.

Сергей Надсадin вручил организаторам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и дипломы от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за оказание содействия в проведении фестиваля.

Гвозде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 мастер-класс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кимчи. Для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блюда организаторы заранее засолили пекинскую капусту, приготовили пасту яннем и раздали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ингредиенты гостям фестиваля, которые под чутк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иготовили знаменитое блюдо, сообщает администрация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Фото пресс-служб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Мун Чжэ Ин призвал весь мир объединиться в преодолении глобальных проблем

20 сентября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находящийся с визитом в США,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в рамках Целей в област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SDG). Он стал единственным главой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глашённым на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открывшееся в рамках 76-й сессии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ООН. В своей речи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началом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является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неравномерного распределения вакцин в эпоху коронавируса. Мун Чжэ Ин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климатическим изменениям и ликвидации разрыва в развит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Он призвал всё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общество объединиться в решении этих проблем. В мероприятии такж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члены популярн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оп-группы BTS. Они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в качестве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езидента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ы и будущих поколений,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олодёжи всего мира. Они заявили, что молодёжи нужно не бояться перемен, а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их. Они также призвали всех жить с позитивным настроем, несмотря на трудную ситуацию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На мероприятии также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видеоклип на песню Permission to Dance, снятый в штаб-квартире ООН. В видео певцы заложили призыв к преодолению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РК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в Азии в глобальном рейтинге инноваций

РК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Азии в глобальном рейтинге инноваций за 2021 год (Global Innovation Index 2021),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20 сентября Всеми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Она опередила Сингапур, Японию и Китай. Среди 130 стран мира, учтённых в рейтинге, РК заняла пятое место, уступив Швейцарии, Швеции, США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Это несомненный успе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когда РК занимала десятое место. По данным Всеми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в этом году стран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существенное улучшение позиций в категориях глобальной стоимости бренда, экспорта культурных и творческих услуг.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ядерная программа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МАГАТЭ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ядерная программа находится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МАГАТЭ). Об этом заяв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гентства Рафаэль Гросси, выступая 20 сентября в Вене на открытии его 65-й генераль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Ранее МАГАТЭ подтвердило, что Пхеньян возобновил работы по обогащению урана в своём ядерном комплексе в Ёнбёне, запустив реактор на полную мощность. 13 сентября Рафаэль Гросси заявил, что ядер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прежнему вызывает «серьёзную озабоченность». Призвав Пхеньян соблюдать сво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он отметил, что продолжение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является явным нарушени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резолюций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Песня BTS вошла в список 500 величайших песен всех времён

Песня Dynamite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оп-группы BTS вошла в список 500 величайших песен всех времён по версии известного американск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журнала Rolling Stone. В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15 сентября рейтинге песни BTS заняла 346-е место. По мнению составителей, Dynamite, возглавившая чарт синглов Billboard, «стала важной вехой для покорившей мир южнокорейской группы». Журнал Rolling Stone впервые составил список «500 лучших песен» в 2004 году и теперь представил миру его обновлённую версию.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порядка 250 экспертов из мира музыки, в него вошли 254 новые песни, в том числе Dynamite. Первое место в обновлённом списке заняла композиция Respect «королевы соула» Ареты Франклин.

6 октября откроется XXVI Пуса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В ходе XXVI Пуса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BIFF), который стартует 6 октября, кинозалы будут заполнены лишь на 50%. Так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в целях соблюдения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в связи с COVID-19. О подробностях режима работы предстоящего фестиваля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ргкомитета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состоявшейся 15 сентября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В отличие от прошлого года все 223 участвующих в фестивале фильма будут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ся в кинотеатрах по 2-3 раза, как это было до пандемии COVID-19. Фильмы будут показаны в шести кинотеатрах.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и закрытия фестиваля, мероприятия на открытой сцене и другая тради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также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ействующими карантинными мерами.

(RKI)

Меня сильно впечатлили люди: Ким Тонсик о литературе, вдохновении и российских читателях

Ким Тонсик – молодой корейский писатель, яркая звезда современн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За два года (2017–2018) было опубликовано сразу пять сборников его рассказов: «Серые люди», «Самое слабое в мире чудовище», «Жаль, но мне было совсем не совестно!», «Чистосердечное признание», «Ким Наму 13-го числа».

Каждый рассказ, вошедший в сборник Ким Тонсика «Самое слабое в мире чудовище», отличает острая социальная проблематика и глубокий психологизм. Фантастические чудовища, притающиеся к людям, бросают вызов общественным устоям и заставляют переосмыслить многие ценности. Яркий слог, удивительный юмор и оригинальность сюжетов Ким Тонсика настолько понравились читателям, что молодой писатель быстро стал одним из самых читаемых писателей в Южной Корее. Первый тираж сборника «Самое слабое в мире чудовище» был полностью распродан в Корее за один день.

6 сентября Ким Тонсик прилетел в Москву на встречу со своими читателями. В эксклюзивном интервью Корё Сарам писатель рассказал о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и своем отношении к России.

– Вы никогда не учились писательскому мастерству и целых 10 лет трудились на заводе. Как у Вас впервые возникла идея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написании рассказов?

Пока я работал на фабрике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аксессуаров, с утра до вечера воображал разные фантастические ситуации и постоянно сочинял в голове истории. Работа была слишком монотонной и механической, не требующей никакого внимания, и я мог себе все это позволить. Также я любил читать рассказы, размещенные обычными людьми на доске «Страшилка» в интернет-сообществе «Юмор дня». Они были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ми и забавными. Спустя 6 лет с начала знакомства с этим сайтом я также решил попробовать разместить там свой рассказ. Однако, будучи неуверенным в успехе, я выложил только первую часть истории с постскриптом: «Если вам понравилась моя история, попросите у меня вторую половину, и я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ее выложу». В течение 5 часов я ждал и проверял реакцию людей, нажимая на кнопку «обновить», чтобы моя история всегда была на виду. И вот в конце концов кто-то прочитал ее и написал комментарий, что она ему очень понравилась и он хочет продолжения. Так я начал свое писательство.

– Где черпаете вдохновение для написания рассказов?

60% идей и материалов я нахожу в интернете (новостные каналы с множеством комментариев, соцсети, Ютуб и т.д.), 30% – из других источников – из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телевизионных программ, фильмов, телесериалов и комиксов, и 10% – из своей жизни, точнее, из того, что я вижу и слышу.

– Почти каждый рассказ, вошедший в сборник «Самое слабое в мире чудовище», начинается с фразы «Однажды в мире людей появилась чудовище...». Почему для разговора о пороках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щества Вы используете образы сверхъестественных существ, начиная с чудовищ?

Прежде всего, рассказы с ними получаются очень забавными и увлекательными.

Вторая причин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эффекте неожиданности. Люди часто думают, что чудовище – это исключительно злое и вредное существо, однако в моих рассказах они добрые и честные, а люди, наоборот, существа со множеством проблем и недостатков. Поэтому мои чудовища часто имеют белоснежную внешность и по характеру очень наивные. Как вы сказал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в человеческом мире появляется чудовище, люди сразу пугаются и убегают. Я думаю, что если бы мы смогли увидеть



истинный образ нашего мира, то поступили бы с собой именно таким же образом.

Третья причина связана с тем, что я в основном размещал свои рассказы в интернете, где читатели очень заняты и совсем не любят длинные истории. Чтобы написать очень короткие истории, мне нужны были эти сверхъестественные существа, которые могли бы совершать любые странные действия, не нуждающиеся в подробном, и даже логическом, объяснении.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я смог значительно сэкономить место на страницах.

– На какие проблемы Вы стремитесь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читателей сборника «Самое слабое в мире чудовище»?

Если честно, то я пишу рассказы тольк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людям было интересно и увлекательно их читать. Я не пытаюсь донести миру какую-либо мораль или учение. Правда, многие говорят, что после прочтения моих рассказов невольно начинают глубоко задумываться о своей жизни и окружающем мире, чему я безусловно рад.

– Полный тираж сборника был распродан в Корее за один день. Как Вы на это отреагировали?

Это было для меня совсем неожиданно, так как я был уверен, что сам факт того, что мою книгу напечатали, уже и есть самое большое чудо в моей жизни. Но когда я узнал, что с продажами книги случилось еще большее чудо, я был просто в восторге.

–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в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сегодня? Какие жанры преобладают? Каких писателей Вы могли бы выделить?

К моему стыду, я не читал книги в детстве и юношестве, они всегда клонили меня ко сну. Само собой, я также не интересовался тенденцие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Хотя теперь думаю, что надо бы почитать друг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и даже поинтересоваться тенденциями в мире литературы. Но пока не могу себе этого позволить из-за нехватки времени... Простите меня.

В свое оправдани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стал писателем совсем случайно. Правильнее сказать, что меня превратили в писателя сами читатели. Знал бы, что стану писателем, или мечтал бы об этом, думаю тогда попытался бы проявить ко всему этому интерес.

– Читали ли Вы что-то из русской классики и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современных авторов? Если да, то какие, поделитесь Ваш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пять простите меня! Я же не читал даже корейскую литературу...

– Вы впервые приехали в Россию, какие у Вас ожидания? Что Вам было бы интересно узнать и посмотреть?

Меня сильно впечатлили люди. Россияне по темпераменту очень похожи на корейцев. Особенно мне понравилась в них искренность. Хотя никто при первой встрече приветливо мне не улыбался, но в общении с ними я всегда чувствовал искренность и тепло.

(Корё Сарам)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5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азбирается в конфликте главврача и сотрудников Невельской ЦРБ

По информации медик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больницы Алексей Саранов общается с подчиненными в неуважительном тоне, нарушает инструкции по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е идет на компромиссы и решает конфликты недопустимыми методами. Областное ведомство уже отреагировало на обращение сотрудников учреждения и инициировало комплексную проверку больницы.

— В результате аудита будет дана оценка деятельности исполняющего обязанности главного врача учреждения.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проверки документы уже запрошены. Кроме тог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отрудники ведомства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в районную больницу для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а на местах. Специалисты выяснят вс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случившегося и примут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безопасности персонала больницы меры, —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Невельскую центральную районную больницу отправятся депут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Там они совместно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инздрава проведут встречу с сотрудниками и руководством учрежд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а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к отопительному сезону

На эти цели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правлено более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х работ на островах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14 километров тепловых и 32 километра водопроводных сетей, а также 5,3 километра сетей водоотведения. Общая готовность области составляет 95 процентов.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в ходе рабочего совещания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коро наступят холода,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в срок завершить подготовку к отопительному сезону. С особ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к работе должны подойти ресурсоснабжающие организации. Главам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и министерству ЖКХ необходимо тщательно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процесс,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должаются работы по ремонту электрооборудования. В том числе, заменено 118 километров линий электропередачи из 160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Все ресурсоснабжающие организации области заключили договоры на поставку угля и жидкого топлива.

На складах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находится более 32 тысяч тонн угля — это 28 процентов от нормативного запаса топлива. Запас жидкого топлива составляет 2,421 тысячи тонны — 55 процентов от необходимого объема.

Кроме того, на уровне утвержденных нормативов — запасы топлива на электростанциях ПАО «Сахалинэнерго». Так, объем угля — более 55 тысяч тонн, мазута — 1 тысяча тонн. Запасы дизельного топлива на электростанция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также выше плановых показателей.

Напомним, отопительный период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чнется, когда среднесуточная температура воздуха установится на отметке ниже 8 градусов Цельсия в течение 5 суток подряд. В южны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батареи в квартирах потеплеют в начале октября, на южных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 ориентировочно в середине месяца, там традиционно холодает позже. В Охинском районе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к заполнению системы теплоносителем, в Ногликах работу проведут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здравил победителей финала IX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WorldSkills Russia

В рамка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стязани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ТОП-10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и стала лидеро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сего в копилке областной команды — 19 наград. Чемпионат проходил с 24 по 29 августа. Церемония призеров состоялась в «Кванториуме».

— Это наша общая победа и еще одно доказательство того, что наши усилия по развитию движения «Ворлдскиллс»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осят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повышается качество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обновляется материальная база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укрепляются связи с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Безусловно, мы продолжим создавать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ша молодежь получала качеств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занимала лучши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на ведущ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региона. Нам нужны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инженер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IT-сфере и дизайне.

Финал самых масштаб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по стандартам WorldSkills Russia проходил в Уфе. В состяза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2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о всей страны — школьники и студенты в возрасте от 12 до 25 лет. Честь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защищали 33 конкурсант и 26 экспертов.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завоевали 4 серебряных и 5 бронзовых медалей, а также 10 медальонов за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бщекомандного зачета рейтинга регион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8 строчку. Еще три года назад острова находились на 65 месте.

— Я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е в компетенции «Ювелирное

дело». Занимаюсь этим с феврал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пыта у меня не очень много, поэтому не ожидала, что смогу завоевать призовое место. На чемпионате изготавливала довольно большую подвеску из латуни. Работала 2 дня по 5 часов. Конкуренция была жесткая, но я справилась. Заняла второе место, — рассказала ученица второй гимназ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фия Пак.

— Соревновался в компетенции «Эксплуатация беспилотных ави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Обучался этому в «Кванториуме» — я здесь с самого открытия. В 2019 году участвовал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чемпионате, но тогда у меня не получилось занять первое место и пройти дальше. Но в этом году я хорошо подготовился и попал в финал, где завоевал 3 место. Планирую и дальше изучать беспилотники — хочу стать инженером или оператором. Было бы здорово работать и жить на Сахалине, — подчеркнул ученик первого л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италий Фан.

Участникам вручили медальоны за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денеж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и сертификаты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В ходе награждения ребят поздрав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рупнейших компаний области.

— Мы очень гордимся тем, что сахалинские ребята показали такой хороший результат.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островные школьники и студенты по-настоящему любят свое дело. Такие люди нам нужны. Приглашаем на работу, — отметил специалист по обучению ООО «Восточная горнорудная компания» Александр Лапицкий.

Призерам чемпионата из числа школьников вручили также сертификаты на участие в региональной смене Росс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школьников «Шаг в профессию». Она пройдет в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м центре «Лесное озеро» с 25 января по 8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рил работу нового домостроительного комбина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изводство железобетонных домокомплектов открыли в сентябре. Благодаря запуску завода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в короткие сроки возводить высококачественные дома, создавать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получ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налоговые поступления в областной бюджет.

— Мы поставили перед собой задачу ежегодно сдавать по 500 тысяч «квадратов» жилья и с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сдерживать рост цен на жилищном рынк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Этого от нас ждут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Развитие крупнопанельного домостроения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ешению этих вопросов. Запуск но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удачно интегрируется в масштабную программу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 островах. И мы готовы оказывать бизнесу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ддержку в развитии такого важного для жителей дел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рупнопанельное домостроение — одна из самых быстры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 эффектив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озведен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и комфортного жилья. К примеру,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аркаса пятиэтажки требуется всего от полутора до трех месяцев. Немаловажно, что применение готовых домокомплектов исключает ошибки в проектировании и снижает себестоимость работ. Кроме того, крупнопанельное домостроение помогает сократить количество мусора на строительных площадках.

Чтобы запуст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инвестор провел реконструкцию в цехе на улице Ленин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риобрел оборудование 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й транспорт. Первая очередь нового домостроительного комбинат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4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в год и создание 46 рабочих мест, в том числе 37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Пока крупнопанельное домостроение будет вестись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о в перспективе охватит и районы. Вторая очередь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наращивать объемы производства до 100 тысяч «квадратов» в год.

— Есть план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жилых комплексов в Дальнем — это более 2,5 тысячи квартир. Застройка будет вестись малоэтажная —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четырехэтажные дома.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Будем создавать зоны отдыха, зеленые бульвары с выходом к речной набережной, —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Лиго» Игорь Кузнецов.

На комбинате производятся трехслойные панели с лицевой фасадной отделкой, внутренние стеновые панели, плиты перекрытия, лестничные марши, вентиляционные блоки, колонны и балки, арматурные сетки и другие железобетонные изделия,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ы для возведения домов. В планах также — налад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окон и плитки.

Железобетонные домокомплекты могут применяться не только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жилых домов, но и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складских и логисти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офисных зданий.

Отметим, что на островах сформировано 370 перспективных участков под жилищ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кварталы» могут появиться в Дальнем,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и селе Мицулевка. Под индивидуальное жилищ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мечены перспективные участки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анируются два больших микрорайона: «Уюн» более чем на 7 тысяч квартир и «Северный городок» — на 12 тысяч квартир. Третий всего строящегося жиль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 арендное и социальное.

На Сахалин прибыл теплоход «Павел Леонов»

Новейшее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ое судно — второе, которое построили под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ом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спустя месяц пути причалило в порту Корсаков 16 сентября.

— С приходом нового судна мы фактически втрое увеличиваем возможности грузовых и пассажи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А в сочетании с увеличенной частотой авиарейсов мы полностью снимаем вопросы по курильск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Это значит, что люди смогут добраться домой, на службу, в отпуск в любое время. А учитывая, что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будут особ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ой, такое решение уже принято федеральными властями, транспортн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имеет приоритетное значение,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и «Адмирал Невельской» «Павел Леонов» может перевозить 146 человек. На борту созданы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 в каютах есть душевая, телевизор, холодильник. Предусмотрена двухместная каюта матери и ребенка с высокой спинкой кровати. В каюте для пассажир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более широкие двери, оборудованный санузел. На борту есть ресторан на 74 места, буфет, кабинет врача.

— Судно современное, оснащено новейшим навигацио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системы дублируются. При выходе из строя, например, гироскопа, сразу же переходим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путниковой навигации. Эргономика на мостике прекрасная, управлять теплоходом одно удовольствие, а для комфорта экипажа есть небольшой спортзал, сауна и бассейн, — рассказал капитан «Павла Леонова» Роман Ковляков.

Новые суда дают перспективы для роста грузооборота. Каждое вмещает более 3 тысяч тонн — до 24 контейнеров и 6 легк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А благодаря повышенному ледовому классу — Arc 4 — доставить людей и товары суда смогут даже в самых непросты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ях.

— Я участвовал и в перегоне «Адмирала Невельского» на Сахалин, и вот теперь — «Павла Леонова». В первом случае мы шли по южным морям, а в этот раз Северным морским путем, так что я в итоге обошел весь евразийский континент. Могу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заявить, что суда очень надежные и способны работать как в жарком, так и в умеренном климате, — поделился электромеханик Валентин.

Сейчас «Павлу Леонову» предстоит пройти технические процедуры после длительного перехода. Сразу после этого теплоход встанет на линию по маршруту: Корсаков — Кунашир — Шикотан — Итуруп — Корсаков наряду с «Адмиралом Невельским» и «Игорем Фархутдиновым». Первый рейс нового теплохода ожидается в октябре.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ен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конкурс «Человек года»

Номинантами станут выдающиеся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достигшие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ежегодной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Организатором выступ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Конкурс по номинации проводится в целях выявления и поощрения гражда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особые заслуги в обла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экономики, культуры, образования и воспитания, искусства и просвещения, нау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храны здоровья и жизни граждан,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азвития спорта, в укреплении законности и правопорядка, защите прав и свобод граждан, за особое отличие при исполнении служебного долга, — сказано в положении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Человеком г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жет стать житель островов, занимающий активную жизненную позицию, проявивший себя в формировании, сохранении и развитии культур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имиджа региона и достигший высок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успехов. Также конкурс призван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лидеров других номинаций и подноминаций премии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В оргкомитете отметили, что основной задачей конкурса станет повышение социального статуса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активно реализуют свои деловые качеств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и твор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граждански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инициативах, вносят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Также конкурс призван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к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циально — активных жителей,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вклад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в ее развитие,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цессах.

Прием заявок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Министер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mingu@sakhalin.gov.ru до 5 октября. Затем экспертное жюри выберет не менее трех финалистов конкурса для выдвижения их на народ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которое стартует 16 октября на сайте премии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Человек г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ет объявлен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в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4 ноябр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농촌지도자 고령군연합회 추석맞이 대창양로원 봉사활동

농촌지도자 고령군연합회(회장 김상덕) 회원들은 추석을 맞이하여 9월 16일(목) 쌍림면 매촌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대창양로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강제징용으로 모국을 떠나 사할린에서 눈물로 한세월을 보내신 어르신들께 만수무강을 기원 드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기에 잠시

나마 위로의 인사와 함께 손수 준비한 과일, 떡, 고기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신월식 대창양로원 원장은 "농촌지도자 고령군연합회에서 해마다 어르신들을 위하여 방문해 주셔서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리며,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 더욱더 고맙다"고 전했다.

(GBN 경북방송)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행복학습관, 즐기는 체험학교'추석을 빛는 송편'진행

파주시는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15일 해마루촌, 우정마을 행복학습관 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송편 만들기 체험 활동 '추석을 빛는 송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추석을 빛는 송편'은 행복학습관에서 진행되는 즐기는 체험학교 사업으로 마을 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추석을 맞아 고향에 대한 추억과 명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송편 빚기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2차 백신접종을 사전 완료 한 해마루촌 주민 10명과 우정마을 주민 10명이 각각 행복학습관에서 송편 빚기 체험에 참여해 직접 송편을 빚으며 추석 명절의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한 참여자는 "어머니가 추석 전날이면 직접 쌀 반죽을 치대며 해주시던 송편 맛이 생각난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해 아쉽지만 친구들과 송편을 빚으며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파주



▲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행복학습관, 즐기는 체험학교'추석을 빛는 송편'진행

시 문산 종합사회복지관은 경기지역 최북단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복지관'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해마루촌과 러시아의 강제 징용의 피해자인 사할린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학습사업을 파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다.

[경인신문]

양산시 상북면 바르게살기위원회, 사할린세대 위문

양산시 상북면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김부근)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5일 사할린 한인세대에게 과일(배) 35박스(17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상북면 바르게살기위원회는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할 뿐만 아니라 매년 이웃돕기 기탁 등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작년 추석에 지역 내 사할린세대에게 과일(배)을 준비해 명절 분위기를 전했으며 올해에도 명절 위문 자리를 마련했다. 김부근 위원장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 수 있어 감사하고 따뜻한 명절을 지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남매일)

논현1동, 사할린 어르신에 추석맞이 송편 전달

인천시 남동구 논현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변완수)는 최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새마을부녀회 함께 논현14단지 등대마을 아파트 사할린 경로당을 찾아 송편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논현1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어르신들의 향수를 달래고 모국생활의 적응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웅천 논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논현1동에 영주 귀국해 생활하시는 사할린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위로하며, 추석의 고유 음식인 송편을 이웃과 나눠 먹으며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변완수 논현1동장은 "사할린 어르신 가구뿐만 아니라, 1인 노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추석 명절 소외된 어르신들이 없도록 나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매일)

'2021 카자흐스탄 한민족 대축제' 온라인 개최

카자흐스탄한인회와 고려인협회 공동 주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

카자흐스탄한인회(회장 강병구)와 고려인협회(회장 오가이 세르게이 겐나디예비치)가 공동 주관하는 '2021 카자흐스탄 한민족 대축제'가 9월 21일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한인회는 "기존에 교민만 참여하던 운동회를 2019년 가을부터 고려인 동포와 함께하는 한민족 축제로 확대해 카즈구 운동장에서 1천여명이 넘는 교민과 고려인 동포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며 "이후 2020년 코로나 확산에 따라, 온라인 생방송으로 방향을 전환해 올해까지 2회째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전했다.

행사에 앞서 강병구 카자흐스탄한인회장, 고려인협회 오가이 세르게이 겐나디예비치 회장과 김 콘스탄틴 부회장, 구홍석 주카자흐스탄한국대사, 김흥수 주말마티한국총영사가 영상으로 환영사와 축사를 전했다.

이어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국제한문화예술협회와 고려극장의 공연 모습, 한국의 빅오션ENM의 협찬으로 그레이시, 문종업 등 소속 연예인들, 그리고 카자흐스탄 배우이자 프로듀서 누를란의 공연 모습과 축하 메시지가 영상으로 상영됐다.

또한 어린이 대상으로 '코끼리코 하고 신발 던져 받기', 성인 대상 '만보 걷기' 등의 이벤트를 진행, 약 60여명이 해당 모습을 찍은 영상을 보내와 온라인 방송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발표했고, 경품 추첨도 진행됐다.

강병구 한인회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온라인으로나마 행사를 진행하며 고국의 명절 추석 정취를 느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시간이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고려인 동포에게는 민족을 뿌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서경대학교, 「2021년 인생나눔교실」 수도권지역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 본격 시작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중장년 주도 인문활동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교류의 가치 지역 내 확산

서경대학교(총장 최영철) 문화예술센터(前 예술교육센터, 센터장 한정섭 교수)가 주관하는 「2021년 인생나눔교실」의 수도권지역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이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 인생나눔교실」의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주최하고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와 서경대학교 문화예술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50세 이상의 중 장년 세대가 주체가 되어 삶의 경험에서 인문적 가치를 발견하고, 실천하며 지역 내에서 인문가치를 확산해 나가는 소규모 인문활동이다.

서경대학교 문화예술센터는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1, 2차 활동그룹 공모를 진행하였고, 총 31개 활동그룹이 지원한 가운데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중심으로 서류 및 면접심의를 거쳐 총 10개의 활동그룹을 최종 선발하였다.

선발된 활동그룹은 힐링바느질(경기, 자녀와 함께 하는 전통 조각보 바느질 공동작품 제작으로 가족 간의 소통부족 개선 활동), 배가네(경기, 가족과 함께 살펴보는 인생여정과 추억의 노래 나눔 활동), 미추홀아코디언(인천, 어르신들에게 향수에 젖은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힐링을 드리는 활동), 작당(인천, 사할린 귀국 동포 어르신과 소통하고 그들의 삶을 이야기로 남기는 활동), 지구온도 1.5도 내리기(서울, 다음 세대들과의 공감대를 위해 실생활 재료들로 친환경적인 활동 나눔), 우리 모두랑(서울, 서로의 삶 속에 녹여진 음식에 대한 이야기와 자연을 생각하는 친환경 활동 공예 활동), 예향(서울, 과학과 미술, 음악에 숨어 있는 우리의 삶을 세대 간 함께 나눔), 문산의 하모니(경기,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의 우리의 친밀한 이웃으로 초대하는 활동), 같이가치(경기,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 내 인생의 키워드를 공유하는 활동), 세대공감 썬 수다(경기, 여러 세대의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기획, 인문활동 운영) 등이다.

10개의 활동그룹은 지난 9월 8일(수)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사전 워크숍 및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2021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전 워크숍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주관처(서경대학교 문화예술센터), 운영기관(청정프로젝트연구소), 활동그룹, 컨설턴트 등이 참여하였으며,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 수도권지역 사업소개, 운영 및 활동계획, 컨설팅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각 활동그룹은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활동을 하게 되며, 12월에 진행되는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 성과공유회'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정섭 교수(예술대학·문화예술센터장)는 "올해 수도권지역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은 특히 세대 간 소통과 교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여러 세대로 구성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이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에 지원해주신 모든 활동가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이 지역 내에서 세대 간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뉴스에이]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경기 결과에 따르면 <옵티미스트. 황금 함대> 급에서는 와니노 마을의 예고르 로세브 선수와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의 와실리나 메자니코와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은메달은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의 니키포르 보차로브 선수와 와니노 마을의 웨로니카 니콜라예와 선수가 차지했다. 홈스크의 선수인 와짐 코젤니코브와 김 엘리자베타는 동메달을 따냈다. 우승자와 수상자들에게는 우승컵과 상장, 메달, 부상을 수여했으며 경기 참가자 모두에게는 소소한 선물을 전달했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вели итоги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парусному спорту "Осенний бриз"

Открытое первенство по парусному спорту "Осенний бриз" завершилос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евяти дней около 6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Холмска, Невельска, Комсомольска-на-Амуре и села Ванино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показывали своё мастерство управления яхтами в четырёх классах: "Оптимист. Золотой флот", "Оптимист. Серебряный флот", "Луч-радиал" и "Луч-мини".

— Несмотря на непредсказуемые условия, мы смогли провести все гонки. Спортсменам за эти дни пришлось столкнуться со штилем, штормовым ветром, палящим солнцем, дождём и туманом. Были поломаны мачты, порваны паруса, но,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ребята всё выдержали и показали достойные результаты, —

отметила тренер СШОР лет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им Э. М. Комнацкого Валерия Орлова.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в классе "Оптимист. Золотой флот" золотые медали среди юношей и девушек взяли Егор Лосев из Ванино и Василина Медяникова из Комсомольска-на-Амуре. Серебро досталось Никифору Бочарову, также из Комсомольска-на-Амуре и Веронике Николаевой, представляющей Ванино. Бронзовые награды заработали холм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Вадим Котельников и Елизавета Ким.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ёры получили кубки, грамоты, медали и памятные призы.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вручили небольшие презенты,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도서관에서 열리는 창작 모임에 사할린 주민들 초대

9월 28일(화) 러시아의 유명 작가들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아르세네브의 '극동'문학상 수상자와 조직자와의 '창작 만남'이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17시에 시작된다.

행사의 초대 손님으로는 문학상 감독 왜체슬라브 코노발로브, 2021년 문학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이며 19세기 중반 극동지역개발을 주제로 한 <바람의 장미>소설로 2019년 문학상 수상자인 안드레이 겔라시모브 작가, 그리고 러시아 문학의 역사 연구가이자, 산문작가이며 고리키 문학대학 총장 알렉세이 바블라모브가 초대됐다.

모임 참석자들은 초대된 작가들에게 창작 계획과 '극동'문학상에 대해 관심 가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으며 또한 전례

대로 가장 훌륭한 질문으로 선정된 참석자에게는 책을 선사하고, 모임은 작가의 사인회로 마무리한다.

창작 모임은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 1층 강당에서 열리며 추가 정보와 신청은 전화(+7 (4242) 4525-46)로 문의 바람.

Сахалинцев зовут на творческую встречу в библиотеку

Творческая встреча с известными российскими писателями, лауреатами 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ной преми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мени В. Арсеньева пройд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28 сентября. Начало в 17.00.

Гостями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нут куратор литературной премии Вячеслав Коновал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жюри премии 2021 года, лауреат 2019 года за роман "Роза ветров", посвященный освоен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ередине XIX века, писатель Андрей Геласимов, а также прозаик, исследователь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 ректор литератур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 Горького Алексей Варламов.

Слушателям предста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задать интересующие вопросы о преми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а также о творческих планах гостей острова. По традиции, автор лучшего вопроса получит в подарок книгу. Завершится вечер автограф-сессией.

Встреча пройдет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СахОУНБ (1 этаж).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 запись по телефону: +7 (4242) 4525-46,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библиотек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SAKH.COM • БИЛЕТЫ

КИНО

ТЕАТР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

Google play

App Store

КОНЦЕРТЫ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